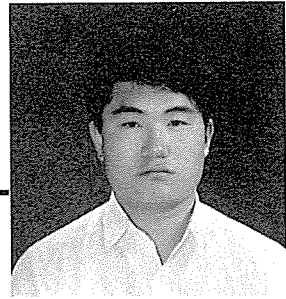


## 실력있는 과학자 우대하는 풍토를...

김태군 <한국교원대 대학원/대기과학 전공>



나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하였다. 기상, 천문, 해양, 지질 등의 넓은 영역을 개론수준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태도는 대학원에서 대기과학을 전공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갔다. 교수님과 함께 학술지에 논문을 수 편 게재하면서 차츰 내가 하고 있는 전공에 관심이 커졌으며, 대기과학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대기화학 혹은 기후변동으로, 이 분야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아 체계적인 공부를 위하여 올 가을에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다.

나의 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연구원 혹은 교수로 일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다른 과학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내가 국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T. K. Kim이란 이름을 전공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축적된 전공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양성 및 전공서적을 많이 집필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나의 이러한 비전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때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다. "외국에 갔다와도 자리가 나지 않고 더구나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교수 혹은 연구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지도교수를 보필(?)하면서 신임을 얻어 나가다 보면 교수 자리를 얻기가 더 유리한데 왜 굳이 외국에 나가 고생하고 또 설령 학위를 받고 들어온다 해도 연줄이 없어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풍토 때문에 요즘은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보다는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내 소견으로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지

만 연구인들의 의욕과 연구경쟁이 미약한 듯 하다. 그리고 연과학이나 공학분야의 지식 및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공동지식이 되었으나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양과 깊이는 아직 외국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과학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학문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가서 체계적으로 더욱 많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수학하는 것이 비단 나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제경쟁력을 획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교육 및 연구풍토가 학연이나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위주로 대우해 줄 때 우리 젊은 과학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부단히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교수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의 교수요원으로 좀처럼 뽑히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M.I.T.는 타대학출신 교수들을 뽑음으로써 새로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는 가운데 학문의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제경쟁력을 얻으려면 우리 젊은 과학도들이 국제적인 과학자가 되려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배양해 나갈 때 가능하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끊임없이 연마해 나가면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과학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선진 과학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ST**